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54호 [부제 제25397호] 주105(2016)년 9월 10일 (토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꽃바구니 진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사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8돐을 맞으며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였다.

주체의 강국건설위업을 개척하고 사회주의위업완성의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집세의 애국자이시며 주체조선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흥분의 정이 만수무단으로 뜨겁게 끓어올랐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앞에 놓여 있었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평양시내 각종 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또한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



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 꽃바구니들의 덩이에는 김정은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다. 거창한 혁명실현, 일화와 같은

여기 있어본적이 없는 장성민영의 새시대를 열어주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겨 보며 집세위인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김일성종합대학, 인민무력성, 인민보안성, 만수대창작사를 비롯한 수도의 여러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들에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기관, 기업소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각지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도 자기 고장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위창한 진로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혁명적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사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정신을 지니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한 근로자들에게 감사사를 보내시었다.

당의 인민중시, 인민중중, 인민사랑의 뜻을 실천에 세겨안은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임상제2의학과 의과대학생들과 교원들과 의사, 간호원들은 뜨거운 인간애와 지극한 정성으로 심한 화상을 입고 사경에 처하였던 명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식성단장의 탄부들을 기적적으로 소생시켜 다시 혁명초소에 세워주는 훌륭한 소행을 발휘하였다.

룡라도지도국 산하단위 로동자 김은순은 만리마의 기상, 자력자강의 창조정신이 나타내는 머뭇거리진장에서 야간지원동지대활공을 활발히 벌리면서 불시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 기간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여 온 남포시 외우도구역인민보안소 로동자 엄학봉은 로동당시대의 선경거리를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위훈을 창조하고있는 건설자들을 돕는 일을 스스로

찾아하였다. 땅이 열린 웅대한 설계도를 최단기간에 현실로 꽃피울 의지를 안고 펼쳐나선 동력대원들의 투쟁에 고무되어 조선인민내무군 기관 리장학도 건설자들의 생활에 뜨거운 정을 기울여왔다. 평성시상업관리소 로동자 홍운영은 청천강-평남간개자언로통시물길건설장에서 이렇고 힘든 일에 앞장서면서 적극적인 지원사업으로 동력대원들의 열의를 북돋아 주었다.

건설의 대변영기가 펼쳐지는 시대의 벽판 승전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함흥시 회상구역과학기술위원회 새기술보급소 보급원 한금환은 고산파수종합농장건설을 다그치고있는 동력대원들에게 정성껏 마련한 많은 후방물자들을 지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사를 무한한 감격속에 받아안은 근로자들은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가 간직하고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 더욱 헌신할 열의에 넘쳐있었다.

본사기자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
숭고한 경의 표시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8돐을 맞으며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9일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김일성동지, 김정일동지, 박봉주동지, 최용태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우당위원장, 평양시당의 당중앙지도기관 상원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 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님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로 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숭고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필상행열에는 당기와 공화국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특근, 해군, 항공 및 안함공군, 로동적위군명예위병대가 정렬해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사 김정일동지의 필상에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참가자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비범한 사상리론 활동과 정력적인 행동로 불멸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시였으며 대양민족이 무궁번영할 만년토대를 마련하여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집세위인들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운동에 들어선 그들은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명도사 김정일동지께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정성과 뜨거운 흥분의 정이 어린 헌장보존실들과 수령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위유하신 사적승용차와 전동차, 배, 철차보존실들을 주의 깊게 돌아보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만대대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원하세일강국으로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갈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중국항일혁명렬사 장물화동지의 가족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사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8돐을 즈음하여 중국항일혁명렬사 장물화동지의 가족이 8일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꽃바구니의 덩이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씨가 적여져 있었다.

본사기자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명도사 김정일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8돐을 즈음하여 9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그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진정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시였으며 나라를사이의 친선관계발전과 세계사주위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경축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필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운동에서 그들은 수령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은 훈장보존실들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위유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철차보존실들을 주의 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방공복에 금을 남기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 성명

조선로동당의 전략적핵무력건설구상에 따라 우리 핵무기연구소 과학자, 기술자들은 북부핵시험장에서 새로 연구제작한 핵탄두의 위력판정을 위한 핵폭발시험을 단행하였다.

핵탄두폭발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된것과 관련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북부핵시험장의 우리 핵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뜨거운 축하를 보내어왔다.

이번 핵시험에서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장비한 전략탄도로켓들에 장착할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확인하였다.

시험분석결과 폭발위력과 핵물질리용결수 등 측정값들이 계산값들과 일치하다는것이 확정되었으며 이번 시험에서 방사성물질누출현상이 전혀 없었고 주위생태 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다는것이 확인되었다.

핵탄두가 표준화, 규격화됨으로써 우리는 여러가지 분별물질에 대한 생산과 그

리용기술을 확고히 틀어쥐고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된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들을 마음먹은대로 필요한만큼 생산할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의 핵무기병기화는 보다 높은 수준에 확고히 올라서게 되었다.

이번 핵탄두폭발시험은 당당한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한사코 부정하면서 우리 국가의 자위적권리행사를 악랄하게 걸고드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위협과 제재소동에 대한 실제적대응 조치의 일환으로서 적들이 우리를 건드린다면 우리도 맞받아칠 준비가 되어있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초강경의지의 과시이다.

미국의 가증되는 핵전쟁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을 보위하고 진정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핵무력의 질량적강화조치는 계속 될것이다.

주체 105(2016)년 9월 9일

평양

